

창조경제의 길; 실크로드와 한류로드



최광식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머리말

우리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비단을 비롯한 많은 문물과 다양한 종교 및 문화를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초원로를 통하여 청동기문화를 받아들였으며, 샤머니즘은 이 때 북방으로부터 유입되었다.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사상은 한사군시기 한반도에 전래 수용되어 지금까지 한국인의 가치지향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간다라지방을 거쳐 천산남로를 통해 서역으로 전해졌으며,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무속신앙, 유교사상, 불교문화는 한국의 역사와 함께 호흡하여 왔으며 토착화되어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실크로드를 통하여 받아들여 우리 문화 체질 위에 이를 변용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이제 한국문화는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 한국은 문화수입국에서 문화수출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화되었다는 것과 함께 의미가 큰 것이다. 실크로드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인 길이었다면, 한국 문화를 세계로 내보내는 길을 한류로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실크로드와 한류로드를 통해 문화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여 창조적인 한국의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실크로드와 고대문화

‘실크로드(Silk road)’는 말 그대로 무역을 통해 비단이 이동한 길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비단은 교역품이나 선물로 주위의 여러 나라에 전해졌다. 비단은 직물로서는 최상품에 속하는 것으로, 화려한 의상의 재료였을 뿐 아니라 국가나 개인 간의 증여품이나 돈을 대신하는 지불수단으로까지 사용되었고, 서방 세계에서도 귀하게 취급되었다. 실크로드의 기본적 기능은 오아시스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대상무

역에 의한 교역루트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역을 통한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의 부수적인 현상으로서, 문화의 전파와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실크로드는 ‘문명 교류’의 대명사로서 보다 넓은 문화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실크로드가 문명사적 교류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불교문화의 유입이다. 불교는 삼국시대에 전래되어 남북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 분야에 영향을 주었고, 조선시대에 그 범위가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앙적, 문화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신라 미술이 북방 또는 서역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신라 미술의 여러 특징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북방과 관련해서는 기원전 7세기 경 출현한 유목민족인 스키타이 문화가 일찍부터 주목되었는데, 스키타이 미술의 특징은 동물문양이다.

한편 신라 미술에는 서역의 색채도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삼국시대 신라 고분의 부장품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유리제품과 금속공예품이라 할 수 있다. 통일신라 초기의 조각은 삼국시대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외국의 최신 경향을 받아들이고 소화해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신라의 조각 중에 서역적 요소가 반영된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신라 미술에 보이는 서역적 혹은 인도적 요소가 서역을 통해 직접 전래된 것이든, 아니면 중국을 통해 들어온 것이든 간에, 신라와 서역·인도 사이의 직·간접적 교류관계 자체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요소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이 일찍부터 관심을 두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온 것은 이 부분이 고대 문화의 원류와 문화 간 융화 과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앞에서 우리는 동·서 문명교류의 대명사로서 '실크로드'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 교류의 실상을 역사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문화가 고대로부터 중국을 포함해 서역, 그리고 서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문화의 특징은 단순히 설명할 수 없으며, 한국문화는 매우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흔히 한국문화의 특징을 검소함이나 소박한 멋 등으로 표현하지만, 고려불화를 보면 화려함과 우아함 또한 한국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검소함과 소박함은 조선시대 문화의 특징인데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의 것을 우리 전통문화 전체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한국문화의 특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곧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각 나라마다 또 시기마다 전통문화의 특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문화는 실크로드를 통해 외래문화와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그 내용을 받아들여 융합해왔다. 불교문화나 유교문화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받아들여 우리 고유의 것과 융합시키면서 창조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굴암과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그러하고, 조선시대의 성리학 발달과 양반문화가 또한 그러하다. 유교는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사상을 집요하게 추구하였고 또 심화된 사상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유교적 생활문화를 준수하고자 하여 중국보다도 더욱 깊이 있는 철학과 생활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종교와 신앙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큰 종교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에서 이들 종교는 각각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종교의 존재 양태는 다양성과 개방성, 뛰어난 흡수력과 조화로움이 바로 한국문화의 특징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맺음말

전근대에 실크로드를 통해 우리나라가 외국의 여러 나라, 여러 문명과 교류했듯이, 현대에는 한류로드를 통해 다른 나라와 끊임없는 문화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한국의 전

통 문화, 순수문화예술을 보고 듣고 즐기면서 공감하고, 우리도 그들의 문화를 즐기는 쌍방향 교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한류 3.0시대의 진정한 목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스스로 한국문화의 특징을 잘 알고 의미를 부여하며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 사람들이 한류를 즐기듯이 우리도 다른 문화를 관람하고 체험해야 할 것이다. 한류라는 명주실을 통해 우리는 전통문화 한류, 스포츠 한류, 관광 한류, 콘텐츠 한류 등 온갖 진귀한 구슬을 하나로 꿰 멋진 목걸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서역 및 서양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더욱 새롭게 발전시켰듯이 상호교류의 열린 자세와 융복합적인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견지한다면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쌍방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문화를 존중하고 더욱 발전시켜 인류문화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민간 합동으로 발족한 한류3.0위원회가 여러 장르의 한류 현상에 대해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각 장르들을 연결하여 시너지효과를 보도록 논의구조를 만들었으므로 이를 계기로 상승효과를 거두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으로 연결시켜나간다면 한류는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필자 소개

- ▷ 고려대 사학과, 동 대학원 졸업(한국고대사학 석·박사)
- ▷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문화재청 청장
- ▷ 제46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임

주요 저서

-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한국 무역의 역사》,
-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 《한류로드-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화》 등

